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16	08. 23	08. 30
대표 기도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요18~21장, 행1~13장)
2.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은 강단으로 나와서 인도해주십시오.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4.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수정 성도(12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 (새번역).....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182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이수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15 : 1 - 7(신p259).....이수현 집사
(Römer 15:1-7)
- 설 교 Predigt 진정한 기쁨!.....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20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율법의 기록함을 인식하라!

우리의 양심에 율법의 기록함과 의로움에 대한 인식을 도입하고 율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여호와와의 두려움과 그분이 얼마나 의롭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양심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강력한 도전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마음에 죄가 숨어 있는 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양심에 환기시켜주십시오. 만일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내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해 은밀한 죄에 빠진 사람은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범죄를 붙잡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사역은 영혼을 각성시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일은 자기 마음의 강박함과 죄의 기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배교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경로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조금씩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악한 것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죄와 유혹 / 故 John Owen
(17세기 영국 신학자)

* 법은 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한다.
- 故 M. R. Dehaan -